

#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

Type of Emotional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Husband and Wife Who Has Adolescent Children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丁恩美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金明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un Mi, Jung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Myung Cha, Kim

##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및 절차

IV. 연구결과 및 분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s for the purpose of help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husband and wife and additionally supplying the basic data for establishment of desirable relationship of the two by examining their emotional self-disclosure type and perceived emotional self-disclosure type of spouse.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husband's group reveals the order of complete closure type, complete disclosure type, positive disclosure and negative disclosure, but the wife's group shows the order of complete disclosure, complete closure, positive disclosure and negative disclosure.

2) Emotional self-disclosure type perceived by husband is proved in the order of complete disclosure, completed closure, negative disclosure and positive disclosure, and the type perceived by wife is in the order of complete closure, complete disclosure, negative disclosure and positive disclosure.

3) There appear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rried couple's emotional self-disclosure type and perceived emotional self-disclosure of spouse. It is proved that they perceive their spouse's emotional self-disclosure type in the same way as their type, though.

4) There is proved some significant difference in emotional self-disclosure type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which shows the highest degree of marital satisfaction in the both groups in positive disclosure and it becomes lowered in the order of complete disclosure, complete closure and negative disclosure.

5) There is proved some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ived emotional self-disclosure type of spouse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which shows the highest degree of marital satisfaction in the both groups when they perceive in the type of positive disclosure and it becomes lowered in the order of complete disclosure, complete closure and negative disclosure.

## I. 서론

전통적인 한국가족에서는 혈연중심의 부자관계가 가족내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었으나, 현대가족에서는 가족구성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핵가족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수직관계의 부부관계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중심의 수평적 상호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 기능은 축소되고, 가족간에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이질성이 존재하며, 가정내 인간관계가 축소된 상황에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서적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애정 집단으로서 가정의 기능은 현대에 와서 더욱 더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정의 안정과 지속성은 상호보완적 관계인 부부관계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관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표출하는 감정적 자기노출은 부부상호간에 자신을 나타냄으로써 신뢰와 친밀감을 발달시켜 주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에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는 결혼생활을 15년 정도 지속하였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부부자신의 문제와 신체

적, 심리적 격동기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가 맞물려 매우 복잡하고도 역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부부간 원만한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의 안정과 행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장래의 결혼생활에까지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가정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을 긍정적인 감정의 자기노출과 부정적인 감정의 자기노출 정도에 의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심리적 변인에 따른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측정하며;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부부관계에서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바람직한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부부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고찰<sup>1)</sup>

### 1. 감정적 자기노출

자기노출(self-disclosure)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Jourard와 Lasakow(1958:91)로 자기노출을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의사전달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Jourard, 1971:19) 또한 Johnson과 Noonan(1972)은 자기노출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자신에 대해서나 갈등하고 있는 문제, 관심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이야기 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과 관심사, 그리고 그 밖의 주변상황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를 내렸다.

이러한 자기노출에 관한 개념들을 토대로 Highlen과 Voight(1978)는 감정적 자기노출이란 “상대방에게 자발적인 언어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상호작용이며, 자기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고, 변경애(1993 : 8)는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등의 개인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자발적인 언어로 알리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 2.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자기노출 내용에 있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른 분류로 먼저 변경애(1993)는 감정적 자기노출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사랑, 행복은 긍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 미움, 슬픔은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에 포함시켜 긍정적 노출과 부정적 노출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완전노출형, 긍정노출형, 부정노출형, 완전폐쇄형으로 나누어 남편집단과 부인집단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을 분류하고, 상호노출형, 남편노출형, 부인노출형, 상호폐쇄형으로 나누어 한쌍을 이룬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김인숙(1988)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의 감정노출정도의 차원에 있어서 집단간의 결혼만족도 비교를 위하여 부부 모두 긍정적

인 감정노출이 높은 동일집단, 부부 모두 부정적인 감정노출이 높은 동일집단, 부부 모두 감정노출이 낮은 동일집단, 부부간의 감정노출정도에 차이가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Glenn(1990)은 부부간의 자기노출을 긍정적 노출, 부정적 노출, 중립적 노출로 분류하였고, Baltazar(1987)도 자기노출을 긍정적 노출, 부정적 노출, 중립적 노출로 나누는 뒤 한 쌍의 부부를 상호노출형, 남편노출형, 부인노출형, 상호폐쇄형으로 분류하였다.

언어적인 감정노출에 대한 분류는 Davidson, Balswick와 Halverson(1983b)은 사회교환이론을 근거로 부부간의 감정노출을 사랑, 행복, 슬픔, 분노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광치화(1985)는 감정적 자기노출을 사랑, 행복, 미움, 슬픔 등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여, 유쾌한 감정적 자기노출에는 사랑과 행복을 포함시키고, 불유쾌한 감정적 자기노출에는 미움과 슬픔을 포함시켰다.

자기노출의 양과 내용에 따라 Palti(1987)는 친밀한 자기노출과 표면적인 자기노출로 나누었고, Kimoto(1987)의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을 진실성, 의도, 횡수, 양, 깊이 등의 다섯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Aust(1993)는 자기노출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구에서 자기노출을 노출의 양, 노출하고자 하는 의도, 긍정적-부정적 노출, 노출의 깊이로 나누어 보았다.

## 3.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

자기노출은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척도가 되며,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자기노출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관계가 있다.(광치화, 1985) 즉, 감정적 자기노출정도가 낮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표현되어 전달된 감정이나 의도, 또는 행동들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몰입해 있지 않거나 정서적인 감정을 무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가 높다는 것은 사실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강하게 몰입해 있음을

1) 결혼만족도, 관련변인 고찰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음. 이에 대한 내용은 정은미,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5, pp.11-21.

나타내고 그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김인숙, 1988)

자기노출의 양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Jorgensen과 Gaud(1980)의 연구에서는 자기노출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혼만족도도 체계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여 부부의 자기노출과 결혼만족도 사이에 직선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Davidson, Balswick와 Halverson(1983a)의 연구에서는 결혼관계에서 자기노출은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고, 남편의 자기노출은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관계되며, 부인의 자기노출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의미있게 상관이 있었다.

Hansen과 Schuldt(1984)는 남편의 경우 자기노출의 양과 부인의 자기노출에 대한 지각의 양이 모두 남편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관계가 있었고, 부인의 경우는 자기노출의 양이 부인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관계되어 있었으며, 남편과 아내의 자기노출 불일치를 지각하는 정도는 결혼만족도와 부정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 Grossman(1988)의 연구에서는 남편보다 부인이 자기노출을 더 많이 하고, 자기노출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기노출의 정도보다는 일치정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 Davidson와 그의 동료들(1983b)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자기노출의 정도보다는 부부상호간의 불일치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차이를 보였고, 불일치가 클수록 결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Webb(Hansen & Schuldt, 1984:재인용)은 감정노출이 둘다 높은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감정적 노출의 양이 불일치하는 부부이며, 감정노출이 둘다 낮은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노출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자기노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부부간의 친밀감은 높아진다는 Waring과 Chelune(198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자기노출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Adams(1980)는 부정적인 감정노출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긴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고, Gilbert(1976)는 자기노출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곡선모델로 설명하였다. 즉 알맞은 수준의 자기노출을 할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완전폐쇄형과 완전노출형은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Palti(1987)의 연구에서는 친밀한 자기노출을 할 때 표면적인 자기노출보다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Baltazar(1987)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노출이 상호노출형일 때 결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고, 부정적 노출이 긍정적 노출이나 중립적 노출보다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노출유형보다는 배우자의 자기노출유형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심리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심리적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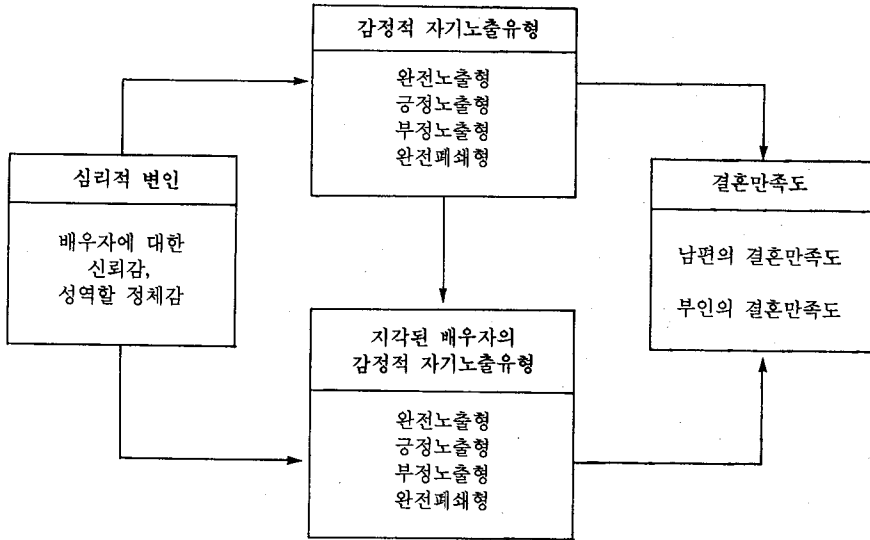
【연구문제 3】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 모형

위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3. 조사도구의 선정 및 작성

1)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 척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을 측정하기 위해 Larzelere와 Huston(1980)이 개발한 부부간 신뢰감 척도인 D.T.S(Dyadic Trust Scale)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8문항으로 신뢰도(Cronbach'  $\alpha$ )는 남편과 부인 각각 .74와 .80이었다.

2) 성역할 정체감 척도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척도는 장하경·서병숙(1991)의 성역할 정체감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조사와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남성성 10문항, 여성성 10문항, 공통성 5문항이 선정되어 총 25문항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체 응답자의 남성성

과 여성성 점수의 중앙치를 준거로 하여 각 개인의 성특성을 중앙치 분리법에 의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sup>2)</sup>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정체감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1과 .80으로 나타났다.

3) 감정적 자기노출 및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관한 척도

감정적 자기노출과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을 측정하기 위해 Balswick(1975)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관한 척도(The Expression of Emotion Scale)와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관한 척도(The Perception of Expression of Emotion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감정적 자기노출은 사랑, 행복, 미움, 슬픔 등 4개의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인별로 4개 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각된 배우

2)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남성성 점수	3.40-5.00	3.40-5.00	1.00-3.40	1.00-3.40
여성성 점수	3.26-5.00	1.00-3.26	3.26-5.00	1.00-3.26

자의 감정적 자기노출도 감정적 자기노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긍정적 노출과 부정적 노출이 모두 중앙치보다 높을 때는 완전노출형, 긍정적 노출은 높으나 부정적 노출이 낮을 때에는 긍정노출형, 긍정적 노출은 낮으나 부정적 노출이 높을 때는 부정노출형, 긍정적 노출과 부정적 노출이 모두 중앙치보다 낮을 때에는 완전폐쇄형으로 분류하였다.

#### 4)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는 Roach, Frazier, Bowden(1981)의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조사와 문항 분석을 실시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18문항이 선정되어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남편과 부인의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변 인	문항수	Cronbach' $\alpha$		
		남편	부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	8	0.74	0.80	
성역할 정체감	25	0.81	0.80	
자신의 감정적 자기노출	긍정적 노출	8	0.87	0.87
	부정적 노출	8	0.80	0.85
	전 체	16	0.87	0.90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	긍정적 노출	8	0.88	0.88
	부정적 노출	8	0.88	0.97
	전 체	16	0.90	0.90
결혼 만족도	18	0.92	0.92	

#### 4.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안양시에 거주하며 첫자녀가 중·고등학생인 부부로 현재 이혼, 별거, 사별

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절차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안양시 동안구와 만안구의 6개 중학교를 선택하여 학생들의 부모님 두분이 자기 기재식 방법으로 응답토록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5년 7월 6일부터 7월 15일 사이에 부부 13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척도를 수정, 보완한 후 본조사는 1995년 7월 24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총 600쌍(1200명)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61쌍(722명)이 회수되었으나, 이 중에서 내용 기재가 부실하거나 첫자녀가 중·고등학생이 아닌 72쌍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89쌍(578명)을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심층면접조사는 설문지의 내용 중 감정적 자기노출과 결혼만족도에 해당되는 부분의 질문을 중심으로 작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토대로 대화형식으로 하였고, 면접은 응답자의 양해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접을 실시한 13명 중 대상자 규정과 맞지 않는 3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된 부부는 10명, 모두 5쌍으로 되었다.

면접을 통해 녹음된 자료는 문자화하였으며, 면접 내용을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조사와 극히 연관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응답자의 응답을 그대로 문자화하였고, 결과해석 과정에 보충자료로 이용하였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이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집된 자료는 SAS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여 문항분석,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뒤 t-test, F-test, paired t-test,  $\chi^2$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심층면접 자료는 녹음된 내용을 문자화하고 관련 지문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578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편	289(50)	결혼전 교제기간	6개월 미만	76(26.3)
	부인	289(50)		6개월-2년미만	163(56.4)
				2년이상	50(17.3)
남편연령	40세이하	49(17.0)	부인연령	35세 이하	20( 6.9)
	41세-45세	164(56.7)		36세-40세	167(57.8)
	46세이상	78(26.3)		41세이상	102(35.3)
	평균연령	44세		평균연령	40세
남편학력	중졸이하	56(19.3)	부인학력	중졸이하	107(37.0)
	고졸	164(56.7)		고졸	152(52.9)
	대졸이상	69(23.9)		대졸이상	29(10.0)
남편종교	유	170(58.8)	부인종교	유	218(75.4)
	무	119(41.2)		무	71(24.6)
월평균소득	150만원이하	74(25.6)	남편의 직업	생산/판매직	133(46.0)
	151만원-200만원	98(33.9)		서비스/ 사무직	122(42.2)
	201만원-250만원	60(20.8)		연구관리/ 전문직	34(11.8)
	251만원이상	56(19.7)			
부인의 직업유무	유	128(44.3)			
	무	160(55.7)			
자녀수	1명	20(6.9)	결혼형태	연애혼	129(44.6)
	2명	207(71.6)		중매혼	92(31.8)
	3명이상	62(21.5)		절충혼	68(23.6)
남편의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	상	96(33.2)	부인의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	상	96(33.2)
	중	103(35.6)		중	106(36.7)
	하	90(31.2)		하	87(30.1)
	평균	3.90		평균	3.60
남편의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97(33.6)	부인의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98(33.9)
	남성성	46(15.9)		남성성	28( 9.7)
	여성성	56(19.4)		여성성	90(31.1)
	미분화	90(31.1)		미분화	73(25.3)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표 4〉는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긍정적 노출은 남편이 2.97, 부인이 2.98로 의미있는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정적 노출은 남편이 2.75, 부인이 2.88로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이 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남편과 부인의 긍정적 노출과 부정적 노출의 전체 평균을 중앙치로 하여 구분한<sup>3)</sup> 결과는 〈표 5〉과 같다.

위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남편은 완전폐쇄형이

〈표 3〉 심층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직업	결혼전 교제기간	결혼 형태
1.	남편	48	고졸	260만원	판매직 판매직	6개월-1년미만	절충혼
	부인	41	고졸				
2.	남편	47	대졸	320만원	행정관리직 사무직	3개월-6개월미만	중매혼
	부인	40	대졸				
3.	남편	44	대졸	350만원	연구기술직 판매직	4년이상	연애혼
	부인	42	대졸				
4.	남편	45	고졸	150만원	행정관리직 주부	1년-2년 미만	연애혼
	부인	43	고졸				
5.	남편	41	고졸	180만원	사무직 주부	1년-2년 미만	연애혼
	부인	37	고졸				

〈표 4〉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정도

	남편		부인		전체		paired-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 노출	2.97	0.70	2.98	0.74	2.98	0.72	-0.29
부정적 노출	2.75	0.63	2.88	0.70	2.82	0.67	-2.81**

\*\* P&lt;.01

〈표 5〉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의 일반적  
경향

유형 구분	N(%)			
	완전 노출형	긍정 노출형	부정 노출형	완전 폐쇄형
남편(289명)	90(31.1%)	60(20.8%)	43(14.9%)	96(33.2%)
부인(289명)	107(37.0%)	47(16.3%)	47(16.3%)	88(30.4%)

노출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두 집단간의 상반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남편의 경우 긍정노출형이 부정노출형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심층면접에서도 남편은 감정을 별로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인은 남편에 비해 감정을 더 많이 노출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부인은 완전

남편 3 : “결혼생활이 19년 정도 됐으니까 피차간에 알

3)

	완전노출형	긍정노출형	부정노출형	완전폐쇄형
긍정적 노출	2.98-5.00	2.98-5.00	1.00-2.98	1.00-2.98
부정적 노출	2.82-5.00	1.00-2.82	2.82-5.00	1.00-1.82



만큼은 다 알지 그러니까 뭐. 실망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어. 그냥 들어서 맞춰 가지고 대충 살아가는 거지. ...중략... 미운 감정이 든다든가 내 마음의 화난 문제를 가지고 가급적 귀찮고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해. 얘기해 봐야 대답이 뻔하니까”

남편 4 : “(동정심을 느낄 때) 그런거 얘기 안하지. 가정(아내는) 몸이 약한데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이다라는 생각은 나혼자만 하지 말은 그렇게 얹해. ...중략... 45세 정도 되면은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 진짜 외롭다고 느낄 때 그걸 부인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오히려 다른 사람... 아주 친한 친구라든가 다른데 다가 푸는 경우가 많아”

남편 5 : “제가 원래 어려서부터 애정표현을 하는 걸 싫스럽게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러는 거 같아요. 어렸을 때 자라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집사람처럼 애정표현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중략... 내가 슬프거나 내자신이 우울하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집사람에게는 안 비치죠. 왜냐하면 가장으로써 집사람에게 내 비치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애들이나 집사람에게는 비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인 2 : “나는 남편이 좋을 때하고 미울 때 얘기를 잘 하는 편이야. 싸움을 하자는데 아 니고 부부는 이런 것은 좋고, 이런 것은 나쁘다고 얘기해야 서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거지”

부인 3 :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고 싶을 때) 오늘 힘들었지요. 뭐, 그런식으로 시작해서 애들의 하루 중에서 좋았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부인 4 : “(남편이 실망스러울 때) 말로 바로바로 하는 편이야. 남편은 자주 늦게 들어오는 데 연락이 없으면 정말 미칠 것 같거든. 그럴 땐 배신당한 것 같애.”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결혼생활을 보통 15년이상 지속했기 때문에 남편들이 신혼기에 비해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남자들은 어린시절부터 진정한 감정을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자신에게도 감추도록 교육받는 반면 여자들은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시절부터의 조건형성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노출을 많이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Derlega & Chaikin, 1975; Grossman, 198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심리적 변인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

출유형에 관한 결과는 <표 6>, <표 7>에 나타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p <.01)에 따라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상집단과 하집단에서는 모두 완전폐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긍정노출형의 경우는 상집단과 중집단에서 많이 나타났고, 하집단에서는 부정노출형이 많이 나타나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을 많이 노출하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p <.001)에 따라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완전노출형과 긍정노출형이 많이 나타났고, 낮을수록 완전폐쇄형과 부정노출형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신뢰감이 자기노출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신뢰감에 따라 자기노출이 달라진다는 Altman과 Taylor(197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배우자를 신뢰할 수록 자신의 감정을 마음놓고 표현하게 되며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더 표현하여 긍정노출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남편과 부인 모두 p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편의 경우 양성성은 완전노출형과 긍정노출형이 많았고, 미분화는 완전폐쇄형과 부정노출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남성성은 완전폐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여성성은 완전노출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인은 양성성의 경우 완전노출형과 긍정노출형이 많이 나타났고, 미분화는 완전폐쇄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완전노출형과 완전폐쇄형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여성성인 경우 남성성에 비해 긍정노출형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양성적인 사람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유형화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상호 관계에서 적응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위축되거나 불편함 없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을 지닌 남편과 부인은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지

〈표 6〉 심리적 변인에 따른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심리적 변인		자기노출유형	N(%)			
		완전 노출형	긍정 노출형	부정 노출형	완전 폐쇄형	합계
신 뢰 감	상	31 (32.29)	24 (25.00)	8 ( 8.33)	33 (34.38)	96 (100)
	중	31 (30.09)	29 (28.16)	14 (13.59)	29 (28.16)	103 (100)
	하	28 (31.11)	7 ( 7.78)	21 (23.33)	34 (37.78)	90 (100)
	비 고	$\chi^2=19.527$ ** df=6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41 (42.26)	27 (27.84)	6 ( 6.19)	23 (23.71)	97 (100)
	남성성	11 (23.91)	11 (23.91)	11 (23.91)	13 (28.27)	46 (100)
	여성성	21 (37.50)	13 (23.21)	5 ( 8.93)	17 (30.36)	56 (100)
	미분화	17 (18.89)	9 (10.00)	21 (23.33)	43 (47.78)	90 (100)
	비 고	$\chi^2=39.401$ *** df=9				

\* P <.05, \*\* P <.01, \*\*\* P <.0001

〈표 7〉 심리적 변인에 따른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심리적 변인		자기노출유형	N(%)			
		완전 노출형	긍정 노출형	부정 노출형	완전 폐쇄형	합계
신 뢰 감	상	52 (54.17)	25 (26.03)	9 ( 9.38)	10 (10.42)	96 (100)
	중	34 (32.08)	15 (14.15)	17 (16.04)	40 (37.73)	106 (100)
	하	21 (24.14)	7 ( 8.04)	21 (24.14)	38 (43.68)	87 (100)
	비 고	$\chi^2=47.392$ *** df=6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46 (46.94)	25 (25.51)	10 (10.20)	17 (17.35)	98 (100)
	남성성	11 (39.29)	2 ( 7.14)	7 (25.00)	8 (28.57)	28 (100)
	여성성	34 (37.78)	11 (12.22)	18 (20.00)	27 (30.00)	90 (100)
	미분화	16 (21.92)	9 (12.32)	12 (16.44)	36 (49.32)	74 (100)
	비 고	$\chi^2=33.734$ *** df=9				

\* P <.05, \*\* P <.01, \*\*\* P <.001

못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현실상황에 적응력이 약하고, 평등주의적인 부부관계에 기초해서 서로의 상대자가 될 수 없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노출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거나 긍정적 노출보다는 부정적 노출을 더 많이 하며 긍정적인 노출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지각된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정도는 〈표 8〉에서 보여주듯이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긍정적 노출은 3.07,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긍정적 노출은 2.93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부정적 노출은 2.96,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부정적 노출은 2.70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감정적 자기

〈표 8〉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정도

	남편이 지각한 부인		부인이 지각한 남편		전체		paired-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긍정적 노출	3.07	0.68	2.93	0.73	3.00	0.71	2.99**
부정적 노출	2.96	0.70	2.70	0.71	2.83	0.71	4.64***

\* P<.05, \*\* P<.01, \*\*\* P<.001

노출정도가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보다 긍정적 노출, 부정적 노출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4〉에서 보여준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정도와 비교해 볼 때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은 실제 부인의 노출정도보다 높게 지각하였고, 부인은 실제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부인의 경우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에 대해 남편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지각된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남편과 부인이 지각한 배우자의 긍정적 노출과 부정적 노출의 전체 평균인 중앙치를 중심으로 분류한<sup>4)</sup> 결과 지각된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표 9〉과 같다.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완

전노출형이 가장 많은 반면에 부인은 남편을 완전폐쇄형이라고 지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심층 면접에서도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감정 노출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남편 1 : “실망했다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 청춘남녀 같이 듣기 좋은 표현으로 ‘자기 이렇게 해서 나 실망했어...’ 이런 식이 아니지. 실망했으면 그게 곧장 바가지 끊는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자주 하는 편이지.”

남편 4 : “(부인이 다정하게 대해 주고 싶을 때) 행동도 하고, 말로도 해. 당신 좋아요, 멋있다고 그래 가면서 믿고 살만하다. 정말 자상하고 잘 해준다. 내가 행복에 겨워서 몸이 더 약한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남편 5 : “(부인이 나에게 사랑을 느낄 때) 얘기하죠. 아내하고 나이 차이는 나지만 집사람은 솔직하기 때문에 얘기를 다하죠. 그 정도로 집사람은 표현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편입니다.”

〈표 9〉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의 일반적 경향

구분	유형	N(%)			
		완전 노출형	긍정 노출형	부정 노출형	완전 폐쇄형
남편이 지각한 부인( 289명 )		109(37.7%)	35(12.1%)	58(20.1%)	87(30.1%)
부인이 지각한 남편( 289명 )		71(24.6%)	48(16.6%)	57(19.7%)	113(39.1%)

4)

	완전노출형	긍정노출형	부정노출형	완전폐쇄형
지각된 배우자의 긍정적 노출	3.00-5.00	3.00-5.00	1.00-3.00	1.00-3.00
지각된 배우자의 부정적 노출	2.83-5.00	1.00-2.83	2.83-5.00	1.00-2.83

또한 남편이 감정노출을 하지 않는다고 지각한 부인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부인 1 :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은 안해. 그러면 내가 왜 말로 안하느냐고 묻지. 그러면 이 사람이, 여지껏 사는데 사랑하니까 살지 꼭 표현을 해야 아느냐는 식이야.”

부인 4 : “(남편이 침뚫한 기분이 될 때) 그런 얘기는 못들어 봤어. 지금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잘 얘기 안하는 편이야”

부인 5 : “남편은 동네에서 기본 좋은 일이 생겨도 표현을 안하는 편이죠. 제 3자를 통해서 알게 되 지 직접은 얘기를 못 들어요. ...중략... 슬픔이요? 남편은 술로 풀죠. 남편들 같은 경우에는 여 자들한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깊은 얘기까지 안 해요”

이는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서 남편은 부인이 자신에 비해 감정을 더 많이 노출한다고 지각하며, 부인은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을 매우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에서는 긍정노출형이 부정노출형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에서는 부정노출형이 긍정노출형보다 많이 나타나 자신은 긍정적 노출을 더 많이 하고, 배우자는 부정적 노출을 더 많

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배우자의 감정은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 변인에 따른 지각된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에 관한 결과는 <표 10>, <표 11>에 나타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p <.001)에 따라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상집단과 하집단인 경우에 완전노출형으로 가장 많이 지각하였고, 하집단에서는 상집단에 비해 부정노출형으로 많이 지각하였으며, 상집단에서는 긍정노출형으로 많이 지각하여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남편은 부인이 긍정적인 감정노출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자기노출유형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p <.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즉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상집단의 경우 완전폐쇄형, 완전노출형, 긍정노출형, 부정노출형의 순으로 지각하였고, 하집단의 경우에는 완전폐쇄형, 부정노출형, 완전노출형, 긍정노출형의 순으로 지각하여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감정적 자기노출을 많이 한다고 지각하였다. 이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배우자도 자신에 대한

<표 10> 심리적 변인에 따른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심리적변인		자기노출유형	N(%)			
			완전노출형	긍정노출형	부정노출형	완전폐쇄형
신뢰감	상	41 (42.71)	20 (20.83)	12 (12.50)	23 (23.96)	96 (100)
	중	36 (34.95)	10 ( 9.71)	16 (15.53)	41 (39.81)	103 (100)
	하	32 (35.56)	5 ( 5.55)	30 (33.33)	23 (25.56)	90 (100)
비 고		$\chi^2=27.399$ *** df=6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49 (50.52)	14 (14.43)	15 (15.46)	19 (19.59)	97 (100)
	남성성	18 (39.13)	5 (10.87)	7 (15.22)	16 (34.78)	46 (100)
	여성성	22 (39.29)	6 (10.71)	10 (17.86)	18 (32.14)	56 (100)
	미분화	20 (22.22)	10 (11.11)	26 (28.89)	34 (37.78)	90 (100)
	비 고		$\chi^2=21.583$ * df=9			

\* P <.05, \*\* P <.01, \*\*\* P <.001

〈표 11〉 심리적 변인에 따른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심리적 변인		자기노출유형	N(%)			
			완전 노출형	긍정 노출형	부정 노출형	완전 폐쇄형
신뢰감	상	29 (30.21)	27 (28.12)	5 ( 5.21)	35 (36.46)	96 (100)
	중	30 (28.30)	13 (12.26)	21 (19.81)	42 (39.63)	106 (100)
	하	12 (13.79)	8 ( 9.20)	31 (35.63)	35 (41.38)	87 (100)
	비 고	$\chi^2=39.419$ *** df=6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33 (33.68)	18 (18.37)	12 (12.24)	35 (35.71)	98 (100)
	남성성	8 (28.57)	3 (10.71)	7 (25.00)	10 (35.72)	28 (100)
	여성성	15 (16.67)	20 (22.22)	22 (24.44)	33 (36.67)	90 (100)
	미분화	15 (20.55)	7 (9.58)	16 (21.92)	35 (47.95)	73 (100)
	비 고	$\chi^2=17.235$ * df=9				

\* P <.05, \*\* P <.01, \*\*\* P <.001

신뢰감이 높다고 지각하여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박정희(1990)의 연구와 비교할 때 감정적 자기노출이기 때문에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자기노출보다는 신뢰감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지각된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이 지각한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양성 성인 경우에 완전노출형이 가장 많았으며, 미분화의 경우에는 완전폐쇄형과 부정노출형이 많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인 경우에는 완전노출형으로 가장 많이 지각하였다.

부인이 지각한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양성성인 경우에 완전노출형, 완전폐쇄형이 많았고, 남성성은 완전폐쇄형, 완전노출형의 순이었으며, 여성성과 미분화인 경우에는 완전폐쇄형과 부정노출형이 많이 나타나 양성성일 때 배우자가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미분화일 때 부정적 노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도 일치하는 결과로서 양성성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잘 노출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감정도 잘 지각하여 상황에 잘 대처하기 때문에 완전노출형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고, 미분화적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노출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감정도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3.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과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의 차이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에 따라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남편과 부인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의 경우 자신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이 완전노출형과 긍정노출형은 지각된 배우자의 노출유형도 완전노출형이었으며, 부정노출형은 배우자의 노출유형도 부정노출형으로 가장 많이 지각하였으며, 완전폐쇄형은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완전폐쇄형으로 가장 많이 지각하였다. 즉 자신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동일한 유형으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지각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

남편 1 : “(미운생각이 들 때) 나 하고 비슷한 것 같애. 아내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애.”

남편 2 : “글쎄, 우리 나이에 사랑을 한다고 말로 표현한다는 것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나도 별로 못 듣고, 나도

〈표 12〉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과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

		남편(N=289)					부인(N=289)					N(%)
자기노출 유형	지각된 부인의 노출 유형	완전 노출형	긍정 노출형	부정 노출형	완전 폐쇄형	합계	지각된 남편의 노출 유형	완전 노출형	긍정 노출형	부정 노출형	완전 폐쇄형	합계
	완전노출형	59 (65.56)	7 (7.78)	13 (14.44)	11 (12.22)	90 (100)	완전노출형	43 (40.19)	23 (21.50)	17 (15.89)	24 (22.43)	107 (100)
긍정노출형	24 (40.00)	17 (28.33)	3 (5.00)	16 (26.67)	60 (100)	긍정노출형	9 (19.15)	16 (34.04)	5 (10.64)	17 (36.17)	47 (100)	
부정노출형	7 (16.28)	4 (9.30)	18 (41.86)	14 (32.56)	43 (100)	부정노출형	6 (12.77)	4 (8.51)	16 (34.04)	21 (44.68)	47 (100)	
완전폐쇄형	19 (19.79)	7 (7.29)	24 (25.00)	46 (47.92)	96 (100)	완전폐쇄형	13 (14.77)	5 (5.68)	19 (21.59)	51 (57.95)	88 (100)	
$\chi^2=88.093^{***}$ df=9						$\chi^2=59.499^{***}$ df=9						

\* P <.05, \*\* P <.01, \*\*\* P <.001

별로 안했고...”

부인의 경우는 자신이 완전노출형인 경우에 완전노출형으로 지각하고 긍정노출형은 완전폐쇄형이나 긍정노출형으로 지각하였으며, 부정노출형은 완전폐쇄형으로 지각하였고, 완전폐쇄형은 완전폐쇄형으로 남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지각하였다.

이는 자기노출이 높은 사람과 상호작용할 경우 상대방의 높은 자기노출이 개인으로 하여금 더 많은 자기노출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자기노출은 상대방으로부터 지각된 노출정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Ludwing, Franco와 Malloy(198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박정희(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은 상호작용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3.76, 부인이 3.48로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남편은 75.2점, 부인은 69.6점으로 p <.001수준에서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정승혜, 1988; 서광희·조병은, 1993; 최규련, 1993)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편은 주로 가정내의 일보다는 사회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둬므로 가정은 주로 부인이 경영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구체적인 여러 면에서 부인보다 가정 생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아 더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것이며, 또는 부인의 감정적 경향과 남편의 이성적 경향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양현아, 1986)

또한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대체로 낮은 것은 가족생활주기별로 결혼만족도를 살펴 본 선행연구(김정원, 1986)와 일치하는 결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는 가족생활주기 중 IV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U-자형 곡선으로 변화하는 결혼만족도에서 낮은 단계에 해당된다.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 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

자기노출 유형	남 편			부 인		
	평균	표준편차	D	평균	표준편차	D
완전노출형	3.84	0.63	B	3.75	0.71	A
긍정노출형	4.06	0.52	A	3.89	0.60	A
부정노출형	3.43	0.61	C	3.06	0.61	B
완전폐쇄형	3.65	0.60	B	3.16	0.64	B
F값	11.33***			25.55***		

\* P<.05, \*\* P<.01, \*\*\* P<.001 (D: Duncan's grouping)

남편과 부인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의 경우 긍정노출형이 가장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였고, 완전노출형, 완전폐쇄형, 부정노출형의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낮아져 부정노출형인 경우에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여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부인은 긍정노출형, 완전노출형, 완전폐쇄형, 부정노출형의 순으로 결혼만족도가 낮아져서 남편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에서도 지지되었다.

남편 3 : “말로 하지. 구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고 또 괜히 건드리지. ...중략... 표현하는 게 좋지. 예 틀들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는게 사람은 참 좋은 건데 아. 내가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하는게 당연히 집안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면으로 봐서 당연히 좋겠지.”

부인 1 : “(행복하다고 느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 정도되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틀려지니까.”

부인 5 : “어떤 행동보다 부부는 말 한마디가 고마운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든가 말이 생활에 활력소가 많이 되죠. ...중략...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 한다는 자체가 꼭 필요 해요.”

이는 긍정적인 감정노출이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

타내고, 부정적인 감정노출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긴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Adams, 1980)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특히 사랑,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노출에 의해 결혼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콕치화(198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또 완전폐쇄형보다는 완전노출형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부부간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결혼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부쌍방간의 자기노출이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감정노출이나 부정적인 감정노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김인숙(198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 5.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

(연구문제 5)과 관련하여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는 〈표 14〉에 나타난 결과와 같다.

〈표 14〉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과 결혼만족도

지각된 배우자의 노출유형	남 편			부 인		
	평균	표준편차	D	평균	표준편차	D
완전노출형	3.91	0.65	AB	3.66	0.73	B
긍정노출형	4.02	0.47	A	3.90	0.67	A
부정노출형	3.41	0.59	C	2.98	0.52	C
완전폐쇄형	3.71	0.57	B	3.45	0.70	B
F값	11.28***			18.66***		

\* P<.05, \*\* P<.01, \*\*\* P<.001 (D: Duncan's grouping)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지각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은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긍정적 노출형으로 지각할 때 가장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완전노출형, 완전폐쇄형, 부정노출형으로

지각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부인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긍정노출형으로 배우자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지각할 때 가장 높은 결혼만족도를 나타냈고, 부정노출형으로 지각할 때 가장 낮은 결혼만족도를 보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배우자의 자기노출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전길량(198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배우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노출하고, 부정적인 감정은 노출하지 않을 때 결혼생활이 원만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편과 부인 모두 부정노출형보다는 완전폐쇄형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 부정적인 감정은 부부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지지되었다.

남편 4: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당신은 참 멋있다고 자주 말하는 편이야.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야. 힘이 되지. 먼저 잘못했던 것까지 다 덮어 버리지. 여자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 ...중략... 행복하다고 그러면은 난 기분이 좋아. 그리고 아주 적은 것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때가 더 기분이 좋거든.”

부인 2: “힘들 때는 (위로하는 말을) 듣고 싶지. 나를 안 아주었으면 좋겠고, 여자는 어쩔 수 없나봐. 남편이 표현해 주길 바래. ...중략... 화났을 때 부인이 왜 화가 났는지 그 원인을 대화로 풀어 줘야 되는데 남편은 나갔다 들어와서 무조건 잠자리에서 해주고, 그래서 풀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중략... 그럴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 화나고 나서 서로 대화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혀 없어.”

부인 5: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법을 바꿨으면 싶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표현을 해 가면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사랑한다든가 하는 말들을 듣고 싶죠.”

그러므로 부부간에 감정을 무조건 노출하거나 감추기 보다는 적절하게 감정을 조정하여 노출하는 것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지각할 수 있도록 긍정적

인 감정은 자주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여겨진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에서 남편은 완전폐쇄형, 부인은 완전노출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부는 아직도 유교사상이 깊게 자리잡고 있어 자기노출실제량에 있어서 부부간에 공평성이 확보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핵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수가 적어지고, 또한 자녀의 독립이 빨라져 부부만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빈둥지 시기가 되기 전연,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부터 부부간의 올바른 대화방향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편은 감정을 무조건 감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부인은 배우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의 형성이 필요하겠다고 하겠다.

둘째,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에 따라 긍정노출형과 부정노출형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자기노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신뢰감이 높을수록 긍정노출형이 많다는 것은 부부가 기능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부부간에 애정을 기초로 하는 신뢰감이 형성될 때에만 사랑,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거리낌없이 노출할 수 있고, 신뢰감이 낮을 때에는 부정적인 감정 노출이 많아져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성역할 정체감이 양성성일 때 완전노출형과 긍정노출형이 많이 나타나고, 미분화일 때 완전폐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양성적인 사람이 부부관계에서도 적응적이고 융통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긍정노출형과 완전노출형의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속에서 부부 상호간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남성성과 여성성 성역할 정체감을 균형있게 발달시키는 새로운 성역할 개념에 근거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는 중년기를 앞두고 있는 단계이므로 바람직한 중년기 적응을 위해서는 양성적인 성역할 정체감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긍정노출형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을 통한 의사전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결혼생활의 행복이나 만족 등을 가져와 결혼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부부간의 긍정적이고 솔직한 자기노출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이며 노력해야 할 측면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편과 부인이 긍정적인 자기노출을 통해 자녀중심관계보다는 부부중심관계를 우선으로 하여 부부관계의 친밀함과 성실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녀에게 올바른 부부상을 심어주고, 자녀들의 문제를 예방하며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감정적 자기노출유형을 언어적인 자기노출로 한정하여 분류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볼 때 비언어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비언어적인 노출까지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구사회의 표현문화에 맞는 척도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화가 풍부하고 적절한 감정노출을 하는 부부일수록 건강한 부부가 되는 지름길이므로 아무리 바빠도 대화의 시간을 확보하여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교환하고, 수용하는 대화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감정을 노출하는 기법 등

을 학습해야 하며, 사회기관이나 상담소 등에서 예방과 치료차원으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부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박치화(1985). 부부의 감정적 자기노출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인숙(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 제차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정원(198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적응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핵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박정희(1990). 부부의 자기노출과 지각된 배우자의 자기노출.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5) 변경애(1993). 부부간의 감정적 자기노출 정도와 유형에 관한 연구 -감정의 언어적 자기노출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서광희·조병은(1993). 농촌부부의 배우자 역할평가와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1(1).
- 7) 양현아(1986). 부부간의 결혼실재상이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장하경·서병숙(1991). 성역할 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 9) 전길량(1988). 자기개방과 부부적응에 관한 상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 12) Adams, B.N.(1980). *The family*. 3r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13) Altman, I. & Taylor, D.A.(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Holt, Rinehart and Winston.

- 14) Aust, P.J.(1993). Self-disclosure and marriage: Identifying a primary disclosure demension for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15) Balswick, J.(1975). The development of an emotion scale and expression of emotion scal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38.
- 16) Baltazar, P.L.(1987). Valence of marital self-disclosure as related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17) Davidson, B., Balswick, J. & Halverson, C. (1983a). The relation between spousal affective self-disclosure and marital aduj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4).
- 18) Davidson, B., Balswick, J. & Halverson, C. (1983b). Affective self-disclosure and marital adjustment: A test of equity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 19) Derlega, V.J. & Chaikin, A.L.(1975). *Sharing intimacy : What we reneal to others and why*. N. Y.:Prentice-Hall Inc.
- 20) Gilbert, S.J.(1976). Self disclosure, intimacy, and communication in families. *The Family Coordinator* Vol.25.
- 21) Glenn, J.E.(1990). An analysis of positive, negative, or neutral self-disclosures in marital couples classified as complementary, symmetrical, or parallel relationship sty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Brigham Young University.
- 22) Grossman, B.W.(1988).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L. A.
- 23) Hansen, J.E. & Schuldt, W.J.(1984). Marital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6.
- 24) Highlen, P.S. & Voight, N.L.(1978). Effects of social modeling, cognitive structuring and self-management strategies on affective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5.
- 25) Johnson, D.W. & Noonan, M.D.(1972). Effects of acceptance and reciprocation of self-disclosure on development of trus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4.
- 26) Jorgensen, S.R. & Gaud, J.C.(1980). Self-disclosure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 The relation examined. *Family Relations* Vol.29.
- 27) Jourard, S.M. & Lasakow, P.(1958).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6(1).
- 28) Jourard, S.M.(1971). *The transparent self*.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29) Kimoto, D.M.(1987). Self-disclosure and marital satisfaction: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dual and single-career marri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30) Larzelere, R. & Huston, T.(1980). The dyadic trust scale: Toward understanding interpersonal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 31) Ludwing, D., Franco, J.N. & Malloy, T.E.(1986). Effects of reciprocity and self-monitoring on self-disclosure with a new acquain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0.
- 32) Palti, L.D.(1987). Intimate and superficial self-disclosure in close relationships as a function of marital satisfaction, trust and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33) Roach, A.J., Frazier, L.P. & Bowden, S.R.(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 34) Waring, E.M. & Chelune, G.J.(1983). Marital intimacy and self-disclos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2).